

'ACT페스티벌' 몰입형 공연 로봇틱 슈트 '인페르노' 체험해보니

# 기계에 통제되는 인간 디스토피아를 경험하다



로봇틱 퍼포먼스 '인페르노' 참가자들이 슈트를 착용하고 있는 장면.



전자신호에 따라 자동으로 움직이는 로봇틱 슈트. 몸이 착용자 의지와 무관하게 마음대로 움직였다.

기계는 인간을 통제하는 디스토피아... 인간이 '문명의 정점'에 있다는 환상이 깨지는 절망적인 근미래(近未來).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복합2관에서 오는 19일까지 펼쳐지는 과학과 문화예술이 결합한 ACT페스티벌. 그가운데 개막일(10일) 열린 2023 미래전설 '인페르노'는 흥미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각광을 받았다.

인페르노는 전자음악과 조명이 쏟아지는 전시장에서 참가자가 로봇 외골격을 입고 춤을 추며 작품의 일부가 되는 이머시브(몰입형) 퍼포먼스였다.

기자는 20kg에 육박하는 로봇틱 슈트를 입고 '로봇'이 되어, 미래 문명의 발달이 가져올 가상세계를 체험했다. DJ의 조작에 따라 몸이 움직이는 상황이 펼쳐졌는데, 마치 인간이 기계에게 조종당하는 '디스토피아적 세계'에 와 있다는 착각이 들었다.

빌 본&루이 필립 데메르가 만든 작품 '인페르노'는 알리기에리 단테의 신곡 지옥 편에 등장하는 '10개의 지옥 심판대'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인간의 신체가 외부 힘으로 통제되는 신곡 원작에서 착

빌 본&루이 필립 데메르 제작 단테 '10개의 지옥 심판대' 모티브

DJ 조작에 따라 신체 움직임 자유 사라진 통제 비극적 모습 묘사

안해, 기계문명이 인간을 조종하는 비극적인 모습을 묘사한 것.

이 같은 설정은 영화 '신과 함께'에서 연옥에 빠진 죄인들이 저마다 업에 따라 무한히 회전하는 원추를 밀어야 하는 '나태지옥' 등을 새로운 형태로 형상화한 것 같았다. 작품명이 인페르노(지옥-불-Inferno)라는 사실도 작가가 전달하려는 인간-기계, 통제-자유, 상관관계와 진의를 가능하게 했다. 작품은 '통제'의 본성을 묻는 것처럼 다가와 다소 불편했다.

기자 외에도 총 11명의 참가자(1차)는 디제이에 따라 하나의 팀처럼 군무를 쳤다. 사전 안무 연습도 필요 없었다. 유압장치와 전자 신호 등으로 팔이 저절로 움직였기 때문. 붉은한 주황색 조명 아래에서 춤추는 동안에는 기계 부속이 된 듯했다.

편리한 점도 있었다. 안무 중 특별히 다음 동작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팔과 고관절이 자동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작품은 일본 로봇 공학자 모리 마사히로의 이론처럼 기계문명이 발전하면 어느 순간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는 '엔케니 밸리(불쾌한 골짜기)'를 떠올리게 했다.

공연 후반부에 접어들면서는 만물의 영장 '인류'가 기계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춤을 추던 중 기계 팔과 반대로 살짝 힘을 줬으나 슈트에는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었고 군무는 쉴 틈 없이 그저 계속될 뿐이었다. 비트가 꺼질 때까지 울려 퍼지는 전자음악과 조명, 연무도 '불길'함을 자아냈다.

말미에는 힘들어하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기계에 종속된 인류의 파멸적 미래를 연상하게 만드는

작가의 의도가 현실화되는 모습이였다. 지친 참가자들은 다수의 드래서(보조인력)를 배치해 언제든 중도 하차할 수 있도록 했다.

체험을 모두 마치고 나자 기계가 지배하는 미래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면서도 왠지 모를 카타르시스도 느낄 수 있었다. 한편으로 기계를 조종하는 DJ(루이 필립 데메르 작가)는 신곡 지옥편에서 단테의 길을 인도하는 '베아트릭체' 같기도, 인간에게 업화를 주는 염라(閻魔) 같기도 했다.

이날 퍼포먼스에 참여한 장나겸(27·조선대 건축학과) 씨는 "인간에 거주해서 ACC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아 그동안 다양한 전시에 참여했다"며 "이번 '기계와 지배'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는 소식을 듣고 '오픈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머시브 공연에 참가해보니 작품이 함의하는 메시지를 온몸을 통해 더 깊게 느낄 수 있었다"며 "미래 사회에 벌어질 지 모르는 기계가 지배하는 디스토피아가 그려져 이색적이면서도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종교음악 오라토리오 '가을밤의 클래식 산책'

풍당클래식, 27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하이든, 루치니, 멘델스존... 세 음악가의 공통점은 '종교음악'에 심취해 있었다는 것이다. 클래식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종교음악은 동서고금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해왔는데, 형상(形相)에 구애되지 않는 음을 소재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풍당클래식(대표 신은정)이 '가을밤의 클래식 산책'을 오는 27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연다. 공연은 16세기 후반부터 만들기 시작한 종교음악 오라토리오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독일 낭만시대를 대표하는 지휘자이자 작곡가, 피아니스트 멘델스존의 '엘리아'가 울려 퍼질

예정이다. 성경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선각자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 등을 악곡에 녹여냈으며 소프라노 장마리아가 '듣거라, 이스라엘이여, 주님의 목소리를!', 테너 고규남이 '정의로운 이들이 빛나게 되리라' 등을 들려준다.

루치니의 음악적 특성을 집대성한 '작은 장엄 미사'도 관객들을 만난다. 12명의 성악가와 2대의 피아노, 발품금으로 연주하는 작품으로 실내악과 관현악 두 버전이 존재하는 곡. 베이스 김일동이 '홀로 거룩하시고'를, 소프라노 정수희가 '십자가에 못박혀' 등을 부른다.

하이든의 걸작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도 레퍼토



베이스 임해철

임해철 작곡가는 "천지창조, 엘리아, 작은 장엄 미사 세 곡에 등장하는 유명한 아리아와 중창으로 무대를 구성했다"며 "오르간 반주와 영상, 조명이 어우러져 늦가을 정취를 즐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석 초대.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리에 있다. 16세기 미켈란젤로의 동명 작품으로도 알려졌다. 하이든의 악곡에도 성결하고 압도적인 감상의 모미가 깃들여 있다. 베이스 임해철의 '바다'는 거품을 내며, 테너 조창후의 '존귀와 위엄 지니고' 등이 울려 퍼질 예정이다.



허백련상 본상 박문중 특별상 김형진 오지호상 본상 송필용 특별상 임용현

## 광주시 문화예술상 미술 분야 수상자 선정

허백련상 박문중·특별상 김형진·오지호상 송필용·특별상 임용현

광주시 문화예술상 미술 분야 수상자로 허백련상 본상 박문중, 특별상 김형진, 오지호상 본상 송필용, 특별상 임용현 작가 등 4명이 선정됐다.

허백련상 본상과 오지호상 본상은 각각 1000만원, 특별상은 각각 500만원.

광주시립미술관(관장 김준기)은 2023년 광주시 문화예술상 미술분야 수상자 4명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부터 미술상을 주관한 시립미술관은 허백련상과 오지호상 수상후보자 공모를 하고, 각각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허백련상 본상을 수상한 박문중 화가는 연진회 미술원 1기를 수료했으며 '밀알 한톨전' 등 다수 전시에 참여했다. 서암전통문화대상 전통회화부문(2017)을 수상했다.

오지호상 본상을 수상한 송필용 화가는 단채전 'Blood and Tears' 등 다수 전시에 참여했으며

제2회 광주미술상을 수상했다. 특별상(허백련미술상)에 선정된 김형진 작가는 전남수묵비엔날레 등 단체전에 참여했고 광주신세계미술상(2013)을 받았다.

오지호미술상 특별상에 선정된 임용현 작가는 조선대 현대조형미디어전공 초빙교수로 활동했으며 한·영수교 140주년 기념전 등 다수 전시에 참여했다.

수상자는 차년도 창작활동 지원과 상장이 수여되며, 본상 수상자에게는 2024년 전시회 개최를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 문화예술상은 한국문화와 미술, 국악 발전에 현저한 업적을 남긴 박용철, 김현승, 정소파, 허백련, 오지호, 임방울의 숭고한 예술정신을 계승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공적이 있는 인사를 대상으로 해마다 수여하고 있다.

시상식은 오는 22일 시립미술관 본관 1층 아트라운지.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전국 독립서점·1인 출판 작가 만날수 있는 자리

'아무튼, 북페어' 18일 전일빌딩245...김소영 작가 북 콘서트도

담양의 '수북수북', 군산의 '리루서점', 곡성 '품안의 숲' 광주 '이것은 서점이 아니다', 서울의 '만유인력', 제주의 '어게인북스' 등..

작지만 책을 매개로 문화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서점들이다. 전국 6개 지역의 12곳 서점들이 '아무튼, 북페어'를 토대로 하나로 뭉쳤다. 전일빌딩245 시민문화체험 특화프로그램 '아트 오아시스'(아트 오아시스)의 마지막 플라마켓 행사에서다.

'책과 삶'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아무튼, 북페어'는 전국의 독립서점들과 1인 출판 작가들을 만

날 수 있는 자리다. 오는 18일 오후 1시 30분 전일빌딩245 4층 중회의실.

정재경 담당자는 "이번 북페어는 전국 각지에 있는 독립서점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동일한 가치를 모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각 서점마다 특징적인 큐레이션이 있어서 개성적인 책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이 아닌 각각 독립서점에서만 볼 수 있는 책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흥미로운 일"이라며 "책을 통한 문화공동체의 역할을 다지고 대형 서점에 가려진 보석 같은

책을 발견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광주를 떠난 이의 시선으로 광주 여행길을 담은 사진을 엮은 독립출판물 '광주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의 저자 김자강이 함께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북 콘서트도 진행된다. '어린이책 읽는 법'의 저자이자 독서교육 전문가인 김소영 작가가 '어린이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김소영 작가는 이번 북토크에서 "기존의 성인 위주의 북토크가 아닌 아이와 부모가 참여해 어린이를 이해하기 위한 올바른 시선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시간"이라며 "우리 모두는 어린이 시절이 있었다"는 메시지를 매개로 참가자들과의 소통에 초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글폼 사전 신청 통해 참여 가능.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